

# 같은 철학, 두 개의 언어

《루시와 팬지의 여왕》소설과 OST 〈사라지지 않는 것〉의 메타포 일관성 비교

소설

인물·사건으로 의미를 보여 줌

가사

핵심 철학을 압축함

멜로디·편곡

같은 의미를 감정으로 전달함

핵심 주장: OST는 소설에 덧붙인 장식이 아니라, 소설의 상징과 가치관을 가사와 음악으로 다시 번역한 두 번째 서사입니다.

# 버려짐은 가치의 소멸이 아니다

소설의 세계 설정이 OST 후렴의 핵심 문장으로 압축되는 과정

## 소설

"여기는 인간들이 쓰다가 버린 것들이 오는 곳"

《루시와 팬지의 여왕》 1-25장 통합교정본 · 버려진 물건들의 세계

## OST

"버려졌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야 / 쓰임이 끝나도 존재  
남아"

〈사라지지 않는 것〉 최종 가사 · Chorus

## 의미 연결

소설에서는 녹슨 철판, 끊어진 전선, 바퀴가 떨어진 장난감처럼 ‘쓰임을 잃은 물건’들이 하나의 세계를 이룹니다. OST는 이 긴 설정을 ‘사라지지 않는 것’이라는 문장으로 압축합니다. 물질적 효용과 존재의 가치를 분리하는 동일한 철학입니다.

## 심사상 의미

AI를 이용해 별개의 소설과 노래를 각각 생성한 것이 아니라, 먼저 정한 작품 철학을 서로 다른 매체의 문법으로 변환한 사례입니다. ‘매체별 중심 설계 원칙’이 됩니다.

## 기억은 이름을 되돌려 준다

소설의 기억 장면이 OST의 '잊었던 이름' 이미지로 이어지는 과정

### 소설

"컵스와 나를 기억해 줘. 그거면 돼."

《루시와 팬지의 여왕》 1-25장 통합교정본 · 그램의 마지막 부탁

### OST

"내가 잊었던 나의 이름 / 나보다 먼저 불러 줬어"

〈사라지지 않는 것〉 V2 최종 가사 · Verse 1

### 의미 연결

소설에서 그램은 루시에게 자신과 컵스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. V2 최종 가사에서는 화자가 잊고 있던 자신의 이름을 다른 존재가 타인의 기억과 호명이 자기 존재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계기로 작동합니다.

### 독자 경험

소설을 먼저 읽은 독자는 '잊었던 이름'과 '먼저 불러 줬어'라는 가사에서 그램과 버려진 존재들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. OST를 먼저 들은 독자는 기억이 왜 중요한지를 더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.

## 가치는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된다

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있던 가치를 알아가는 성장 서사

### 소설

"너를 만나 여기까지 함께 온 건 내가 살아오면  
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야."

《루시와 팬지의 여왕》 1-25장 통합교정본 · 그램의 가치 발견

### OST

"처음부터 내 안에 있던 / 가치는 사라지지 않아"

〈사라지지 않는 것〉 V2 최종 가사 · Chorus

### 의미 연결

소설에서 그램은 루시와 함께한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발견합니다. OST는 그 가치를 새로 획득한 보상으로 그리지 않고 '처음부터 내 안에 있던' 가치를 정리합니다. 관계는 가치를 만들어 주기보다 이미 있던 가치를 알아보게 하는 계기입니다.

### 창작 원칙

이 일관성은 작품의 핵심 철학을 먼저 정하고, 장면·대사·가사의 선택을 그 철학에 맞춰 반복 검수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. AI의 첫 결과물도 실제 활용 방식과 연결됩니다.

## 소설의 사물이 가사의 이미지로 다시 등장한다

저울·양동이·종이 몸 같은 구체적 오브젝트를 가사에 재배치

### 낮은 저울

그램 - 루시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존재

"낮은 저울 손을 내밀어"

### 멈춘 목마

메리 - 멈춰 있던 존재가 다시 움직이는 이미지

"멈춘 목마 하늘을 날아"

### 양동이·종이 몸

상처 난 친구들의 보호와 희생

"찌그러진 몸에 물 담아 / 작은 종이 불길을 막아"

### 왜 중요한가

OST의 이미지는 일반적인 추상어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. 소설 안에서 이미 의미를 얻은 사물을 다시 가사에 사용해, 작품을 오르는 사람들에게는 독립적인 상징으로 작동하게 했습니다.

## 편곡도 서사를 번역한다

가사의 의미뿐 아니라 악기와 조성의 변화까지 작품의 감정 구조에 연결

하프·첼레스타

기억

현악기

루시의 감정

목관악기

버려진 친구들

금관·타악기

위협과 결단

합창

기억·존재·가치의 완성

### 음악적 서사

편곡 노트에서는 마지막 후렴을 장조로 전조하고 풀 오케스트라와 합창으로 확장합니다. 이는 ‘기억-존재-가치’의 완성이라는 작품의 경계를 설계합니다.

### 핵심 입증

가사만 소설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악기 배치와 곡의 확장 방식도 동일한 서사를 따릅니다. 따라서 OST 제작은 배경음악 추가가 아니라 AI 활용 사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.

# 하나의 철학을 소설·가사·음악으로 번역

심사위원이 한눈에 보는 메타포 대응표

| 핵심 철학  | 소설 표현                | OST 표현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존재의 가치 | 버려진 물건들이 살아가는 세계     | 쓰임이 끝나도 존재는 남아           |
| 기억과 이름 | 그램의 “기억해 줘”와 기억 속 세계 | 잊었던 이름을 다른 존재가 먼저 불러 줌   |
| 가치의 발견 |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    | 처음부터 내 안에 있던 가치는 사라지지 않음 |
| 희생과 관계 | 친구들이 루시를 지키는 행동      | 저울·목마·양동이·종이 몸의 이미지      |
| 감정의 완성 | 결말의 가치·기억·존재 통합      | 장조 전조·풀 오케스트라·합창         |

## 한 문장 결론

소설이 철학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준다면, OST는 같은 철학을 가사로 압축하고 음악으로 먼저 느끼게 합니다.